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15년 11월 02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2장

담당: 홍보실 윤정욱 전문원

전화: 02-3701-7349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중국 팽창 대응전략, '인도-퍼시픽' 컨퍼런스 5일 개최 - '인도-퍼시픽'의 부상: 다가올 아시아의 미래 -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Perth USAsia Centre와 공동으로 오는 5일(목) 오전 10시 종로구 경희궁 1가길 소재 연구원에서 '인도-퍼시픽'의 부상: 다가올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중국의 부상과 팽창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의 신전략인 '인도-퍼시픽'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대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후 점차 강화된 미-일-호-인도간 전략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이 전략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 이다.

함재봉 원장이 사회를 맡고, 천영우 고문, 폴 존슨(Paul JOHNSON) 서호주대학교 부총장, 빌 패터슨(Bill PATERSON) 주한호주대사 그리고 비크람 도래스와미(Vikram DORAISWANI) 주한인도대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Perth USAsia Centre는 호주 퍼스에 근거를 둔 Think-Tank로 호주의 인도-퍼시픽 전략을 주도하고 있으며, 호주-미국-아시아의 삼각협력에 관한 전략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전 Mansfield 재단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Gordon Flake가 현재 CEO로 있다.

*행사 취재 요청은 [홍보실\(communications@asaninst.org\)](mailto:communications@asaninst.org) 02-3701-7349)로 4일(수) 오후 12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통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행사 개요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 《선거연구 시리즈 1,2,3》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펜실베이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 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도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행사 개요

1. 일 시: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 오전 10:00 – 오후 12:00
2. 장 소: 아산정책연구원 1층 강당
3. 주 제: “인도-퍼시픽’의 부상: 다가올 아시아의 미래”